

대한불교 천태종의 애국불교와 세계평화

이승남(광도)
(금강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한불교 천태종이 애국불교를 표방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천태종도의 시대적 사명으로서 애국불교 그리고 애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애국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는 천태종도에게 시대적 사명으로서 지상불국의 실현을 교시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국권을 잃은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고 또한 일본인들의 방해로 수행을 하기 어려워 중국으로 건너가 유랑생활을 하였다. 또한 6.25전쟁을 겪으면서 피난생활을 하였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간호하며 부강하고 통일된 나라가 되어야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고 또한 수행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는 전쟁이 중생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민족중흥(民族中興)과 구국제세(救國濟世)로서 세계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조사는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고 나서 천태종도에게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교시하였다. 또한 『천태종성전』에서는 새불교운동의 3대 지표로서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 그리고 애국불교의 건립을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국불교의 방향은 『법화경』의 일승진리를 전 세계에 유포하

여 세계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하는 일은 중생에게 일승진리를 가르쳐 성불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국불교의 방향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일승진리를 알려서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어 일승진리를 배우고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월원각대조사는 천태종도에게 시대적 사명으로서 애국불교를 주창하였으며, 천태종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일승진리를 알려서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해야 한다.

주제어 : 상월원각, 천태종, 새불교운동, 애국불교, 지상불국, 일승진리.

I. 서론

상월원각대조사는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고 나서 대중불교와 생활불교 그리고 애국불교의 삼대지표를 주창하였다. 그는 천태종도에게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천태종의 교지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였다. 특히 삼대 지표 가운데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강조하였다.

대조사는 1969년 중헌선포문에서 “조국재건(祖國再建), 민족중흥(民族中興)의 과업(課業)에 이바지하기를 약속하며 대한불교(大韓佛敎) 천태종(天台宗)을 재건(再建)하여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최상종승(最上宗乘)으로써 불교(佛敎)의 대중화(大衆化), 생활화(生活化)를 지향(指向)”¹⁾한다고 하였다. 1971년 교시문에서 “본종(本宗)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와 시대적(時代的) 사명(使命)을 되새기어 민족중흥(民族中興)과 구국제세(救國濟世)의 성업(聖業)에 이바지하고 독실(篤實)한 신행(信行)으로 본종(本宗)의 교지(敎旨)를 받들어 불교(佛敎)의 대중화(大衆化) 생활화(生活化)로서 지상불국(地上佛國)을 실현(實現)할 것을 발원(發願)”²⁾하라고 하였다. 1971년 『천태종성전(天台宗聖典)』에서는 새불교운동의 3

1) 천태종성전편찬회 1972, 164.

2) 광도 2019, 12.

대지표로서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 그리고 애국불교의 건립을 제시하였다.

대조사는 천태종도에게 시대적 사명으로서 민족중흥(民族中興)과 구국제세(救國濟世)를 교시하고 이를 위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을 실현하라고 하였다. 또한 새불교운동의 3대지표로서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 그리고 애국불교의 건립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천태종도는 일승진리를 바탕으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조사는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고 나서 천태종도에게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시대적 사명을 밝히고 대중불교와 생활불교를 바탕으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의 건립을 강조하였다. 특히 법화일승을 바탕으로 국가의 평화는 물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불교 천태종이 애국불교를 표방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천태종도의 시대적 사명으로서 애국불교 그리고 애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애국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II. 애국불교표방의 역사적 배경

대한불교 천태종이 애국불교를 표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본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며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당시에 유년시절을 보내고 출가수행을 하였다. 또한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나서 남과 북이 갈라져 6.25전쟁을 하였으며, 이때 대조사는 전쟁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전쟁의 시기를 보냈으며, 중생의 고통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쟁을 벗어나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강조하였다.

1.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상월원각대조사는 1911년 음력 11월 28일에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다.³⁾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였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韓日併合條約)

3) 남대총대중사 말씀 조명기박사 쓰심 1987, 13-14.

을 체결하고 통치권을 장악하였다.⁴⁾ 대조시는 통치권을 잃은 나라에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1945년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1950년에는 6.25전쟁이 일어나서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웠다.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남과 북은 갈라져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족이 분열됨으로 인해 남북대치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대조시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었다. 조국의 쇠락과 전쟁을 겪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도인들을 방해하는 일본인들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 수행을 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단양 구인사에서 공주로 피난을 떠났다. 이외에도 수행자로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통일된 조국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조국이 쇠락하였다. 일제는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수 없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였다. 대조시는 조국에서 수행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삶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권을 잃은 나라에서 온 백성을 환영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어느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명승성지를 찾아 유랑생활을 하였다.

『상월원각대조사오도기략(上月圓覺大祖師悟道記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九三〇 경오년(庚午年) 20세(二十歲) 때에 이어서 중국(中國)의 명승성지(名勝聖地)를 편력(遍歷)하였다. 오대산(五臺山) 문수도량(文殊道場), 보타락가산(普陀洛伽山) 관음영랑(觀音靈長), 아미산(俄眉山) 보현도량(普賢道場), 청량산(淸涼山) 화엄성지(華嚴聖地) 등 기타명소(其他名所)를 순석(巡錫)한余力(餘力)으로 북경(北京) 장가구(張家口)를 통해 중국(中國) 서강지역(西疆地域)과 몽고근지(蒙古近地)도 관광(觀光)하고 세계적(世界的) 안목(眼目)이 확대되어 영감(靈感)이 더욱 충만(充滿)되었다. 一九三六 병자년(丙子年) 26세(二十六歲)에 귀국(歸國)하여 그 동안 쌓은 법력(法力)으로 오로지 중생구제(衆生救濟)에 힘쓰기로 하였다.⁵⁾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사방을 다니면서 명승성지를 돌아보았다. 대략 6년의 기간 동안 오대산, 보타락가산, 아미산, 청량

4)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다.

5) 남대총대종사 말씀 조명기박사 쓰심 1987, 23-24.

산, 서강지역, 몽고근지 등 많은 곳을 다녔다. 이와 같이 대조사는 중국의 곳곳을 유랑하며 수행을 하고 법력을 쌓았다. 국권을 잃은 백성이 외국에서 힘든 유랑생활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오랜 유랑생활을 통해 애국심이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대조사는 중국의 곳곳을 유랑하고 나서 천태산을 찾았다. 천태산의 높은 곳에 화정봉(華頂峰)이 있다. 이곳에서 중국의 천태종을 개립한 지의대사(智顛大師, 538-597)가 수행을 하였다. 그는 38세에 천태산으로 왔다. 화정봉에서 홀로 두타행을 하여 일실제(一實諦)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중심으로 강설을 하였다. 이후 『묘법연화경』의 문구를 해석한 『법화문구(法華文句)』, 현의를 설명한 『법화현의(法華玄義)』, 그리고 법화의 수행을 밝힌 『마하지관(摩訶止觀)』의 삼대부(三大部)를 강설하였다 이것이 천태교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삼대부는 천태대사가 깨달은 일실제의 진리에 기반하고 있다. 일실제가 곧 삼제원용이다. 삼대부에서 모든 것이 삼제원용의 일실제에 귀일한다고 설하였다. 특히 『마하지관』에서는 삼제원용의 일실제를 깨닫는 원돈지관에 대하여 설하였다. 보리의 발심(發心)을 하고, 원돈의 수행(修行)을 해서 깨달음의 과보(果報)를 얻고 기교(起教)로 중생을 제도하여 나와 모든 중생이 삼제원용의 일실제에 귀일(歸一)한다고 하는 원돈지관의 체계를 세웠다. 간단히 말해 발보리심을 하고 행보살도를 하여 나와 모든 중생이 삼제원용에 귀일한다는 수행체계를 세웠으며, 이것이 천태종 수행체계의 근간이다.

대조사는 중국에서의 힘든 유랑생활을 마치고 1936년에 귀국을 하였다. 그리고 조국이 해방될 것을 예견하고 1945년 음력 1월 16일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있는 금계포란의 자리를 찾아왔다. 이곳에 터를 닦고 음력 5월 5일에 구인사를 창건하였다. 도량이 정해지자 대서원을 세우고 대각의 성취를 위해 각고의 수행을 하였다.

조국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자 또다시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조국이 분열되고 이어 6.25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대조사는 전쟁을 겪어야 했고 피난을 떠나야만 했다. 단양의 구인사를 떠나서 공주의 마곡사로 피난을 갔다. 그곳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다. 『상월원각대조사오도기략(上月圓覺大祖師悟道記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九五〇 경인년(庚寅年) 40세(四十歲) 때에 6.25동란(六二五動亂)이 일어나자 공주(公州) 마곡사(麻谷寺)에 피난하여 난민구제(難民救濟)에 주력하였다. 사상적(思想的)으로는 불타정

신(佛陀精神)으로 교화(教化)하고 고난자(苦難者)에게는 몸소 온정(溫情)으로 간호하여 주니 모두 도승(道僧)으로 모시게 되어 신도(信徒)가 따랐다. 동지한천(冬至寒天)에 반년(半年)만에 귀사(歸寺)하니 이미 사원(寺院)은 초토(焦土)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곳에 삼간모옥(三間茅屋)을 손수 재건하고 자신성불(自身成佛)을 위하여 선정(禪定)과 주력(呪力)으로 생명(生命)을 걸고 용맹정진(勇猛精進)을 다시 시작하여 일초반분(一秒半分)의 휴식(休息)도 없이 가일층 분발(奮發)하였다.⁶⁾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공주(公州)로 피난하였다. 피난지에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중생들이 있었다. 그들을 온정으로 간호하며 교화하였다. 대조사는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으로 인해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라가 부강하고 통일되어 있으면,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대조사는 피난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보살피 주고 나서 반 년(半年) 만에 다시 단양의 구인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피난을 떠난 사이에 사원(寺院)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았다. 전쟁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중생들은 고통을 받고 수행자는 수행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조사는 부강하고 통일된 나라가 있어야 중생들이 편안하게 수행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대조사는 소실된 자리에 삼간모옥(三間茅屋)을 다시 짓고 용맹정진하여 1951년 음력 12월 28일에 대각을 성취하였다.

조국의 쇠락과 분열로 인해 수행조차 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널리 포교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었다. 남과 북은 대략 3년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휴전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여전히 대치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분단의 고통과 국력의 소비를 겪고 있다.

남한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폐허가 된 곳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조사는 휴전이 되고 나서 차츰 포교를 시작하였다. 이후 10여년이 흐른 뒤에야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고 종단 차원의 포교를 전개하였다.

2.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상월원각대조사가 4세가 되던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World War I)이 발발하였

6) 남대총대종사 말씀 조명기박사 쓰심 1987, 29-30.

다.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4년이 넘게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대전이 이어졌다. 이 전쟁으로 900만 명 이상의 병사가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대조사가 29세가 되던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이 발발하였다.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6년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펼쳐졌다. 이 전쟁으로 2천 5백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3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했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당시 조국은 일본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는 연합국(聯合國, Allied Powers)으로 참전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는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으로 참전하였다. 1937년에는 중국과 전쟁을 하였고, 1941년에는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하였다.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일본은 조선인을 이용하였다. 징병(徵兵)과 징용(徵用)으로 전쟁터와 그 주변에 동원하여 힘든 일을 시켜서 고통을 주었다.

전쟁은 중생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살상(殺傷)의 고통, 병(病)의 고통, 강제노동의 고통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고 악행을 저지른 자는 죄업을 짓게 된다. 살생, 투도, 사음 등 계(戒)를 어기게 되어 이로 인해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죄업을 원인으로 해서 후에 여러 가지 고통의 결과를 받게 된다.

대조사는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전쟁을 보면서 중생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국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일본은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였으며,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당시 대조사는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로하고 교화하였다. 사상적(思想的)으로는 불타정신(佛陀精神)으로 교화(教化)하고 고난자(苦難者)에게는 몸소 온정(溫情)으로 간호하였다. 그리고 역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을 세우고 구인사를 창건하여 수행에 매진하여 대각을 성취하였다.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여 삼대지표를 세우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에 조국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일본은 이러한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이 당시 대조사는 유년시절을 보내고 출가수행을 하고 있었다. 비록 출가를 하였지만 세계대전의 참상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세계대전

이 끝난 후에는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였다. 대조사는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당시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한민족은 조국의 쇠락으로 인해 일제의 통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세계대전의 당시에는 징병(徵兵)과 징용(徵用)으로 전쟁터와 그 주변에 동원되어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민족이 강해져야 하고, 외세의 압박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조사는 민족중흥(民族中興)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민족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한민족이 통일하고 화합하여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화합하여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세계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조사는 구국제세(救國濟世)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III. 천태종도의 사명과 애국불교

상월원각대조사는 천태종도에게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교시하였다. 그리고 새불교운동의 3대지표로서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 그리고 애국불교의 건립을 제시하였다.

1. 천태종도의 사명

상월원각대조사는 1966년 8월 30일에 천태종의 재건을 선포하였고, 1967년 1월 24일에 천태종을 당시 문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였다.⁷⁾ 1969년에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헌을 제정하였다. 종헌선포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에 오래동안 역사(歷史)의 진토(塵土)속에 묻혔던 신성(神聖)한 정신문화(精神文化)를 받

7) 天台宗教典編纂會 1970, 128.

굴(發掘)하여 조국재건(祖國再建), 민족중흥(民族中興)의 과업(課業)에 이바지하기를 약속하며 대한불교(大韓佛敎) 천태종(天台宗)을 재건(再建)하여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최상종승(最上宗乘)으로써 불교(佛敎)의 대중화(大衆化), 생활화(生活化)를 지향(指向)하며 이 종헌(宗憲)·종법(宗法)을 제정(制定)하여 선포(宣布)하는 바이다.⁸⁾

대한불교 천태종을 재건하는 목적이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최상종승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지향하며 조국재건과 민족중흥의 과업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법화경』의 일승묘법에 기반한 천태불교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한 근본목적이 국운융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상월원각대조사는 1971년에 교시문을 공표하였다. 여기서 천태종도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종도(宗徒) 여러분! 본종(本宗)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와 시대적(時代的) 사명(使命)을 되새기어 민족중흥(民族中興)과 구국제세(救國濟世)의 성업(聖業)에 이바지하고 독실(篤實)한 신행(信行)으로 본종(本宗)의 교지(教旨)를 받들어 불교(佛敎)의 대중화(大衆化)·생활화(生活化)로서 지상불국(地上佛國)을 실현(實現)할 것을 발원(發願)할 것이며 이것을 위(爲)하여 다음의 삼대지표(三大指標)를 성실(誠實)히 실천(實踐)할 것을 부처님 앞에 선서(宣誓)할 것이다.

1. 생명(生命)의 참뜻을 자각(自覺)하여 밝은 자아(自我)를 개발(開發)함으로써 인간즉불타(人間卽佛陀)의 진리(眞理)를 체득(體得)한다.
2. 정법(正法)의 대도(大道)를 실천(實踐)하여 밝은 생활(生活)을 창조(創造)함으로써 생활즉불법(生活卽佛法)의 이념(理念)을 구현(具現)한다.
3. 착실(着實)한 교화(教化)를 전개(展開)하여 밝은 사회(社會)를 건설(建設)함으로써 사회즉승가(社會卽僧伽)의 이상(理想)을 실현(實現)한다.⁹⁾

천태종도에게 대한불교 천태종의 역사적 의의와 시대적 사명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천태종도는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족중흥을 이루어 다

8) 天台宗敎典編纂會 1970, 163-164.

9) 광도 2019, 12-13.

시는 외세의 압박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구국제세를 이루어 남과 북이 통일하여 화합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화합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성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도는 본종의 교지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애국불교의 지표

상월원각대조사는 1971년에는 교시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천태종성전(天台宗聖典)』을 발간하였다. 이 성전의 II. 실행편(實行篇)에서는 종단이 지향하는 목표로서 삼대지표와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큰 줄기가 되는 행동요소로서 삼대강령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여기서 새불교운동의 3대지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一, 대중불교를 실현한다. <佛敎의 大衆化>
- 二, 생활불교를 실천한다. <佛敎의 生活化>
- 三, 애국불교를 건립한다. <愛國運動의 展開>¹⁰⁾

『천태종성전』에서는 새불교운동의 3대지표로서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 그리고 애국불교의 건립을 말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교시문에서는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의 실현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불교의 대중화는 대중불교의 실현으로, 불교의 생활화는 생활불교의 실천으로, 지상불국의 실현은 애국운동의 전개로서 애국불교의 건립으로 말하고 있다. 천태종도는 재가와 출가의 사부대중이 모두 수행을 하는 대중불교를 실현하고, 생활 속에서 보살도의 수행을 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여,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어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해야 한다.

『천태종교전 I』에서는 신도회 5대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一, 우리는 부처님의 교지(敎旨)를 지심(至心)으로 받들어 종도(宗徒)의 시대적(時代的) 사명(使命)을 완수(完遂)한다.
- 二, 우리는 실천불교(實踐佛敎)·작복불교(作福佛敎)에 힘써 밝은 자기(自己)를 개발한다.

10) 天台宗聖典編纂會 1971, 383.

三, 우리는 대중불교(大衆佛敎) · 생활불교(生活佛敎)를 이룩하여 밝은 생활(生活)을 창조(創造)한다.

四, 우리는 애국불교(愛國佛敎) · 생산불교(生産佛敎)를 이룩하여 밝은 사회(社會)를 실현(實現)한다.

五, 우리는 자각각타(自覺覺他)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실천(實踐)하여 불국토(佛國土)를 건설(建設)한다.¹¹⁾

여기서 천태종도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대중불교와 생활불교 그리고 애국불교의 삼대지표를 실천하고 불국토를 건설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IV. 애국불교의 방향과 세계평화

불교의 목적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중생세계에 출현하여 일승진리를 가르쳐 성불하게 한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중생은 수행을 하여 성불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은 일승진리를 깨달아 성불할 수 있으므로 애국불교의 방향은 이러한 일승진리를 전 세계에 유포하여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법화일승의 유포

『법화경』의 제2방편품에서 석가모니불은 사리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께서서는 5탁의 악한 세상에 나오시느니라. 말하자면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이니라. 이와 같이, 사리불아, 겁탁의 어지러운 때 중생의 더러움이 두 텃고 간탐과 질투로 여러 가지 불선을 성취하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력으로 일불승에 대해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느니라.¹²⁾

11) 천태종성전편찬회 1972, 181.

12) 『妙法蓮華經』, 「方便品第二」(K. 9, 731c14-19): 舍利弗 諸佛 出於五濁惡世 所謂 劫濁 煩惱濁 衆生濁 見濁 命濁 如是舍利弗 劫濁亂時 衆生垢重 慳貪嫉妬 成就諸不善根故 諸佛 以方便力 於一佛乘 分別說三.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이 사는 탁한 세상에 출현한다. 중생은 간탐(慳貪)과 질투(嫉妬)로 인해 여러 가지 불선(不善)을 저지른다. 이들은 무명의 더러움이 두터워서 일불승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일불승의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 삼승의 방편을 써서 중생을 인도한다. 삼승의 방편에 의해 인도된 중생에게 일불승의 진실을 가르쳐 성불하게 한다.

제2방편품에서 석가모니불은 제법실상(諸法實相)에 대해 설¹³⁾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께서 오로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불아. 무엇을 일러 모든 부처님께서 오로지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는 것이냐.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불지지견(佛之知見)을 열어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보여 주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의 도에 들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불아.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이니라.¹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유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그것은 “불지지견(佛之知見) 개시오입(開示悟入)”이다. 여래가 하는 일은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여 깨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지견으로 알고 보는 것이 제법실상(諸法實相)이다. 실상은 일승진리로서 모든 부처님은 중생에게 이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여 성불하게 한다. 중생은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지견을 얻어 제법실상의 일승진리를 깨달아 성불할 수 있다.

천태대시는 실상에 대해 삼제원융(三諦圓融)으로 설하고 있다. 『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공가중(空假中)이 다름이 없다. 다르다면, 곧 둘이 되며, 둘이 되므로 일실제(一實諦)가 아

13) 『妙法蓮華經』, 「方便品第二」(K. 9, 729c7-11): 佛所成就 第一希有 難解之法 唯佛與佛 乃能究盡 諸法實相 所謂 諸法 如是相 如是性 如是體 如是力 如是作 如是因 如是緣 如是果 如是報 如是本末究竟等.

14) 『妙法蓮華經』, 「方便品第二」(K. 9, 731b1-10): 諸佛世尊 唯以一大事因緣故 出現於世 舍利弗 云何名 諸佛世尊 唯以一大事因緣故 出現於世 諸佛世尊 欲令衆生 開佛知見 使得清淨故 出現於世 欲示衆生 佛之知見故 出現於世 欲令衆生 悟佛知見故 出現於世 欲令衆生 入佛知見道故 出現於世 舍利弗 是爲諸佛 以一大事因緣故 出現於世.

니다. 일실제는 즉공즉가즉중(卽空卽假卽中)으로 다름이 없고 둘이 아니어서 일실제라고 이름한다. 만약 세 가지로 다르다면, 그것은 허위(虛僞)이며 허위의 법을 일실제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세 가지의 다름이 없으므로 곧 일실제다. 만약 다르다면 전도(顛倒)가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일실제가 아니다. 세 가지의 다름이 없으므로 전도가 없으며, 전도가 없으므로 일실제라고 이름한다. 다르다고 하면 일승(一乘)으로 이름하지 않는다. 세 가지가 다르지 않아서 원만하게 구축하므로 일승이라 이름하며, 이러한 일승은 높고 넓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하여 일실제라고 이름한다. … 중략 … 일실제라는 것은 곧 이것이 실상이다. 실상은 곧 『법화경』의 정체(正體)다.¹⁵⁾

실상에 대해 공가중의 삼제로 설명하고 있다. 공가중이 다르지 않아서 일실제라고 하며, 즉공즉가즉중(卽空卽假卽中)으로 삼제원융(三諦圓融)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것을 일승(一乘)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천태대사는 실상에 대해 삼제원융으로 설하고 있다.

천태대사는 『마하지관(摩訶止觀)』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중생이라는 것은 탐(貪)·에(恚)·치(癡)의 마음으로 모두 아(我)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我)가 곧 중생이다. 아(我)는 마음을 따라 일어나며 마음이 삼독(三毒)을 일으키는 것을 곧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한다.¹⁶⁾

중생은 아(我)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탐(貪) 진(瞋) 치(癡)의 삼독(三毒)을 일으킨다. 이러한 삼독으로 인해 업을 짓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다. 중생은 삼제원융의 일승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제원융의 진리를 깨달아 무상보리를 이루고 모든 업에서 해탈하여 무애해탈을 이루고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무한생명을 이루어야 한다.

천태대사는 『마하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즉공즉가즉중(卽空卽假卽中)이며, 마음을 따라 생각을 일으켜

15) 『妙法蓮華經玄義』(T. 33, 781b12-27): 無空假中之異 異則爲二 二故非一實諦 一實諦 卽空卽假卽中 無異無二 故名一實諦 若有三異 則爲虛僞 虛僞之法 不名一實諦 無三異故 卽一實諦 若異 卽是顛倒未破 非一實諦 無三異故 無顛倒 無顛倒故 名一實諦 異者 不名一乘 三法不異 具足圓滿 名爲一乘 是乘高廣 衆寶莊校 故名一實諦 … 中略 … 一實諦者 卽是實相 實相者 卽經之正體也.

16) 『摩訶止觀』(T. 46, 85a7-8): 言衆生者 貪恚癡心 皆計有我 我卽衆生 我逐心起 心起三毒 卽名衆生.

지관(止觀)을 구축한다. 관(觀)을 이름하여 불지(佛知)라고 하고, 지(止)를 이름하여 불견(佛見)이라고 한다. 생각생각 가운데 지관(止觀)이 현전하면 곧 이것이 중생이 불지견(佛知見)을 여는 것이다.¹⁷⁾

중생은 마음이 일어나면 아(我)가 있다고 생각하며 탐·진·치의 3독을 일으킨다. 그런데 중생이 일으키는 마음은 본래 즉공즉가즉중(卽空卽假卽中)으로 삼제원융(三諦圓融)하다. 중생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我)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별을 일으킨다. 중생의 마음이 본래 삼제원융임을 알게 되면 분별을 그친다. 삼제원융하다고 하면 전도되지 않아서 번뇌가 없어 무상보리를 이루고, 번뇌가 없으므로 업이 없어서 무애해탈을 이루고, 업이 없으므로 과보가 없어서 무한생명을 이룬다. 이와 같이 삼제원융을 깨달아 무상보리와 무애해탈 그리고 무한생명의 삼덕을 성취하여 성불할 수 있다. 모든 부처님은 중생에게 일승진리를 가르쳐 이러한 삼덕을 이루게 하여 성불하게 한다.

2. 세계평화의 실현

상월원각대조사는 1971년 발표한 교시문에서 “본종(本宗)의 교지(教旨)를 받들어 불교(佛敎)의 대중화(大衆化)·생활화(生活化)로서 지상불국(地上佛國)을 실현(實現)할 것을 발원(發願)”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교시한 지상불국의 실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다.

1971년 발간한 『천태종성전』에서는 새불교운동의 3대지표로서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 그리고 애국불교의 건립을 말하고 있다.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애국불교의 건립이다. 모든 국가가 불국토로 되면 항구적인 세계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애국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법어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현대는 많은 문제와 고뇌를 안고 화택과 같이 불안한 시대인 바, 이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모든 국민의 불자화에 있으며, 인류가 보살화 되었을

17) 『摩訶止觀』(T. 46, 85a8-11): 此心起時 卽空卽假卽中 隨心起念 止觀具足 觀名佛知 止名佛見 於念念中 止觀現前 卽是衆生 開佛知見.

때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는 실현되는 것이니라.¹⁸⁾

현대는 많은 문제와 고뇌를 안고 있는 화택(火宅)과 같다. 『법화경』의 제3비유품에서는 인간이 사는 세계는 삼계 가운데 욕계로서 불타는 집과 같다¹⁹⁾고 하였다. 여기서 불은 중생이 겪는 고통을 의미한다. 고통의 불은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지어서 생겨난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고 그 과보로 고통을 받는다. 삼계의 중생은 생로병사 등 고통의 불로 태워지고 있다.

중생은 아(我)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을 일으킨다. 이러한 삼독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중생의 모습이며, 마치 불타는 집에 있는 것과 같다.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면 국가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면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세계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삼제원용의 진리는 전쟁을 치유하고 평화를 건설한다. 애국불교의 건립은 삼제원용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법어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천태종도에게는 널리 사회, 국가, 세계에 법화일승의 진리를 광선유포할 대사명이 있느니라.”²⁰⁾ 천태종도는 삼제원용의 일승진리를 널리 유포할 사명이 있다. 또한 『법어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천태종의 목적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법을 배우고 또 행함으로써 먼저 개인의 완성을 높이고 가정을 밝게 하며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며 세계의 참된 평화실현에 기여하는데 있느니라.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묘법화(妙法化)가 우리 종단의 불변한 신조며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니라.²¹⁾

천태종의 목적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묘법화(妙法化)를 이루는 것이다.

18) 천태종교전간행위원회편 2000, 200.

19) 『妙法蓮華經』, 『譬喻品第三』(K. 9, 737c5-14): 舍利弗 如來 亦復如是 則爲一切世間之父 於諸怖畏 衰惱憂患 無明闇蔽 永盡無餘 而悉成就 無量知見 力無所畏 有大神力 及智慧力 具足方便 智慧波羅蜜 大慈大悲 常無懈倦 恒求善事 利益一切 而生三界 朽故火宅 爲度衆生 生老病死 憂悲苦惱 愚癡闇蔽 三毒之火 教化 令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20) 천태종교전간행위원회편 2000, 26.

21) 천태종교전간행위원회편 2000, 24-2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불교와 생활불교 그리고 애국불교의 삼대지표를 실천해야 한다. 천태종도는 재가와 출가의 사부대중이 삼제원융의 일승진리를 배우고 수행을 하는 대중불교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위로는 일승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도를 행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어 일승진리를 배우고 수행하여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완성을 이루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며 또한 세계의 참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가 천태종도에게 내린 시대적 사명으로서 애국불교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애국불교표방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천태종도의 사명으로서 애국불교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애국불교의 방향으로서 세계평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애국불교를 표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다루었다. 상월원각대조사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국권을 잃은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고 또한 일본인들의 방해로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건너가 유랑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애국심이 깊어졌다. 또한 6.25전쟁을 겪으면서 피난생활을 하였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간호하며 부강하고 통일된 나라가 되어야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고 또한 수행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하였다. 대조사는 전쟁이 중생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민족중흥(民族中興)과 구국제세(救國濟世)로서 세계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음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고 나서 천태종도에게 내린 사명과 삼대지표 가운데 하나인 애국불교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월원각대조사는 천태종도에게 민족중흥과 구국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교시하였다. 또한 『천태종성전』에서는 새불교운동의 3대지표로서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 그리고 애국불교의 건립을 말하였다. 천태종도는

재가와 출가의 사부대중이 모두 수행을 하는 대중불교를 실현하고, 생활 속에서 보살도의 수행을 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여,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어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해야 한다.

다음 모든 중생은 일승진리를 깨달아 성불할 수 있으므로 애국불교의 방향은 이러한 일승진리를 전 세계에 유포하여 세계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모든 부처님이 하는 일은 중생에게 일승진리를 가르쳐 성불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국불교의 방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일승진리를 알려서 모든 국민이 불자가 되고 모든 인류가 보살이 되어 일승진리를 배우고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월원각대조사는 천태종도에게 시대적 사명으로서 애국불교를 주창하였으며, 천태종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일승진리를 알려서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된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애국불교를 건립해야 한다.

약호

K. : 高麗大藏經

T. : 大正藏

1차 자료

『妙法蓮華經』(K. 9).

智顓 『摩訶止觀』(T. 46).

智顓 『妙法蓮華經玄義』(T. 33).

2차 자료

광도, 2019. 『상월원각대조사 교시문과 천태범화사상』 서울: 대한불교천태종 출판부.

남대충대종사 말씀 조명기박사 쓰심, 1987. 『上月圓覺大祖師悟道記略』 단양: 大韓佛教 天台宗 總務院.

천태종교전간행위원회편, 2000. 『法語錄』 단양: 대한불교천태종.

천태종성전편찬회, 1972. 『천태종교전 I』 단양: 대한불교천태종.

天台宗教典編纂會, 1970. 『天台宗略典』 단양: 天台宗總務院.

天台宗聖典編纂會, 1971. 『天台宗聖典』 丹陽: 大韓佛教天台宗.

Korean Buddhist Cheontae Order's Pursuit of Patriotic Buddhism and World Peace

SeungNam LEE (Ven. Gwangdo)
(Professor of Geumgang University)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historical background behind the patriotism of Cheontae Order, how Cheontae Buddhists can pursue patriotism as the mission of the times, and the ultimate direction for patriotic Buddhism. Through this study, it's intended that the true meaning of patriotic Buddhism is revealed. Grand monk Sangwol was born during the Japan's colonial rule, and experienced the sorrow and hardships which led him to move to China to practice Buddhism. This time he cam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overeignty and patriotism. While helping the sentient beings suffering from the Korean War, grand monk Sangwol understood that building a strong, unified country is what sentient beings need in order to stay well and safe what monks need to learn and practice Buddhism. Japan's colonial rule coincides with the WW1 and WW2 times, especially the latter one which resulted in the greatest number of casualties in history. These wars led grand monk Sangwol to realize how severely the sentient beings could suffer from, and the necessity to pursue national revival and salvation of the nation and the world towards world peace. Grand monk Sangwol highlighted three doctrines in Holy Book of Cheontae Order : realization of popularization of Buddhism, practice of Habituation of Buddhism, and establishment of patriotic Buddhism. Among them the patriotic Buddhism

is directed to spread the 'one vehicle truth' of the Lotus Sutra to the world and realize the Buddha's Land where the world peace is achieved. What Buddha is to do is teaching sentient beings about the 'one vehicle truth' to lead them to attain Buddhahood. It means patriotic Buddhism therefore should be directed to spread the 'one vehicle truth' to the nation and the world, so that everyone can live as Buddhists and all people around the world as learning and practicing the 'one vehicle truth.' This way, the Buddha's Land where the world peace is achieved can be realized. In conclusion, grand monk Sangwol taught members of Cheontae Order about the patriotic Buddhism as the mission of the time, and therefore the Cheontae Order members should establish patriotic Buddhism where the ever-lasting world peace is achieved, by spreading the 'one vehicle truth' to sentient beings around the world.

Keywords : Sangwol, Cheontae Order, Patriotic Buddhism, one vehicle truth, world peace, Buddha's Land.